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다섯째주 백중기도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전법기도 법회  
 다섯째주 일요일 10 시 30 분 백중 (우란분절) 천도 법회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2 시-4 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108 호실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g 9am. (매주 토요일 9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이달의 법구경

인생의 긴 여정 끝에 닿은 여행자!  
 영원한 자유,  
 생의 온갖 슬픔 여의고,  
 지금까지 나를 묶어 놓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지금  
 생의 열을 불태우지 않아도 되리.

The traveler has reached the end of the journey!

In the freedom of the infinite he is free from  
 all sorrows, the fetters that bound him are thrown  
 away, and the burning fever of life is no more.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9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 “劫火가 대천세계 무너뜨리니”

- 법전 중정예하, 하안거 해제법어 -

오는 5일 기축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도림법전 조계종 중정예하가 해제 법문을 내렸다. 법전 중정예하는 대수법진 선사와 용제소수 선사가 한 남자를 제접한 일화를 소개하며 “누군가 이 산승에게 겁화가 활활 타서 대천세계가 모두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무너지느냐고 묻는다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음은 그만두고 ‘그것’을 제대로 알기나 한 것이냐고 되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전 중정예하는 “무너졌다고 해도 틀렸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틀렸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해제 만행길에 대천세계를 다니며 항상 참구하기를 바란다”고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기축년 하안거 선사방합록>에 의하면 전국 95개 선원(총림 4곳, 비구선원 55곳, 비구니선원 36곳)에서 모두 2237명(비구 1127명, 비구니 933명, 총림 117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도림법전 중정예하의 기축년 하안거 해제 법어 전문.  
겁화(劫火)가 대천세계를 태우니

어떤 남자가 익주(益州) 땅의 대수법진(大隨法眞)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겁화(劫火)가 활활 타서 대천세계가 모두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때 ‘그것’도 무너지니까?”

“무너지니라.”

그 남자는 다시 용제소수(龍濟紹修)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겁화(劫火)가 활활 타서 온 세계가 모두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때 ‘그것’도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느니라.”

‘무너질 괴(壞)’라는 이 한 글자는 바다를 먹으로 삼아 쓰더라도 다할 수 없는 것이니 만일 말을 따라 견해를 내면 ‘그것’과는 천만리 멀어질 것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면 흙탕물이 일어나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너진다고 해도 장애가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장애가 됩니다. 대수가 무너진다고 해도 몸 빠져나갈 곳이 있고 용제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몸 빠져나갈 곳이 있으니 한결 같이 무감각해서도 안 되고 한결 같이 정식(情識)으로 알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산승에게 ‘겁화(劫火)가 활활 타서 대천세계가 모두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때 ‘그것’도 무너지니까?’하고 물어 온다면 그런 남자에게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음은 그만두고 ‘그것’을 제대로 알기나 한 것인가?”

어쨌거나 두 노숙 중에 한 사람은 ‘그것’도 무너졌다고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졌다고 해도 틀렸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해제 만행길에 대천세계를 다니며 항상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학유구고난저익(鶴有九臯難羈翼)이요

마무천리만추풍(馬無千里謾秋風)이로다

학에게는 구고(九臯)에 날기 어려운 날개가 있고

말은 천리에 공연히 바람을 쫓는 일이 없느니라.

2553(2009)년 하안거 해제일에

백중 (우란분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평화적인 종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전법과 포교를 중시하면서도 그로 인한 쟁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놀라울 정도이다. 특히 다른 유일신 종교들의 전개 역사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은 더욱 두드러지고 그에 대한 가치 평가도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평화주의적인 불교지만 인도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곤잘 받는 비난이 있다. 바로 부모에 대한 효성 문제이다. 부모와 가족들 곁을 떠나서 출가의 길을 걷는 불교 수행자는 불효를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더더욱 효를 중시하던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를 비판하는 경우에 첫째가 효, 불효의 문제였다. 과연 불교는 불효의 종교인가?

그러한 비판을 단번에 없애 주는 의식이 바로 우란분절(盂蘭盆節)이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대표적인 불교 명절로

뽑히는 우란분절은 음력 7 월 15 일이다. 이날은 사찰의 5 대 재일(齋日) 중에서 붓다와 관련이 있는 날들, 즉 탄신·출가·성도·열반 등을 제외하고 첫손에 꼽히는 고정된 명절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음력 7 월 보름날은 여름 안거(安居)를 마치는 날이다. 그날 사찰에서는 거의 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벌이기 마련이지만, 성대한 재일(齋日)로써 명절 행사를 갖게 된 데에는 마우드갈리아야나의 설화가 큰 몫을 하였다. 그 내용은 『불설우란분경』에 담겨 전한다.

『불설우란분경』의 주인공인 마우드갈리아야나(목련존자)는 붓다의 10 대 제자 중 한 사람인데, 별칭이 ‘신통 제일’일 정도로 신통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또 그는 ‘효성 제일’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경전에 따르면, 마우드갈리아야나 존자는 6 신통력을 얻고서, 천안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귀도(餓鬼道)에서 먹지 못해 굶주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매우 슬퍼하며 붓다에게 도움을 청했다. 붓다는 마우드갈리아야나에게 음력 7 월 15 일에 밥과 백 가지 맛난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 등을 시방의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그 스님들의 위신력으로 현세의 부모와 7 대의 조상을 비롯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에 따라 마우드갈리아야나는 모든 음식물을 갖추어 공양한 뒤, 어머니를 아귀도의 고통에서 구제했다고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매년 음력 7 월 15 일에 그와 같은 공양을 베풀어서 효순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날로 삼게 되었다. 그런데 왜 우란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우란분(盂蘭盆)이란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ullambana)의 축역어이며,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그대로 음역한 말은 오람바나(烏藍婆拏)이다. 마우드갈리아야나의 어머니가 죽어서 간 아귀도는 거꾸로 매달린 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곳이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기갈의 고통을 받는 이들을 구제하는 날이라는 뜻에서 우란분절이라 한다. 마우드갈리아야나의 효성에서 비롯된 우란분절의 공양 풍습은, 신라 시대부터 계속되어 고려 때까지는 우란분회(盂蘭盆會)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였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 점차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지금은 각 사찰 단위로 치르는 행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달리 우란분절이 아직도 온 나라 민중의 축제로 살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서기 606 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란분절 행사를 치러 왔고 요즘은 ‘오봉(御盆)’이라 부르는 거국적인 명절이자 축제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일본의 오봉날은 선물을 주고받고, 춤추고 노래하며, 특정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날로써 다분히 산 자들을 위한 한바탕 축제에 그치는 감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중국의 우란분절에는 본래 의미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우란분절을 귀절(鬼節) 또는 중원(中元)이라 하며, 망혼(亡魂)을 위한 기원제를 올린다. 그런데 중원이라는 이름에서도 보듯이 불교적 전통뿐 아니라 도교의 영향도 적지 않다.

원(元)이란 도교에서 1 년을 상중하로 3 분한 뒤, 세 차례에 걸쳐서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그 3 원에서 중앙에 있는 것이 중원이며 음력 7 월 15 일에 거행된다. 이와 같이 마우드갈리아야나의 일화에서 기인된 우란분절은 동양의 불교 3 국, 즉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제례 의식이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게 변모한 것 같다. 하지만 산 자의 염원과 선행으로써 이미 죽은 자의 업보까지 바꿀 수 있을 만큼 금생의 공덕이 지중하다는 근본 정신은 어느 나라에서나 변함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여름 안거의 해제일에 우란분절 행사를 함께 거행함으로써 본디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석 달 안거를 통해서 선정(禪定)의 힘을 다진 스님들에게 갖가지 공양물을 바쳐서 공덕을 쌓음으로써 조상의 악업을 씻어 내고 구제한다는 정신에서 불교적 효심을 엿볼 수 있다. 요즘은 우란분절을 백중(百中, 또는 百衆)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백 가지, 즉 온갖 종류의 음식을 공양으로 바치는 날이라는 뜻이지만 아무래도 우란분절이 더 뜻 깊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 보살도의 실천 : 봉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가르침은 부처님 한 분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닫고 증득한 진리의 세계를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데 한 장소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법을 온 세상에 골리셨다. 그것을 불법을 흥포하면서 굴렸다고 하여 전법륜(轉法輪)이라 한다. 대승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깨달음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중생을 돕고 교화하는 마음을 내는 불교이다. 자신이 받은 모든 공덕과 선근(善根)을 돌려서 반드시 밖으로 내어놓는 종교인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을 돌려 타 존재를 향해 큰 마음을 내는 것을 회향(廻向)이라 한다. 《소품반야경》에 의하면 “회향은, 법도, 법에 회향한다는 마음도 없을 때 이것을 아늑다라삼막삼보리에 회향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회향이란 ‘모든 집착을 떠난 공(空)의 의미’라고 풀이 하고 있다. 회향의 의미를 현대적인 관점으로 돌려보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난 희유한 공덕과 부처님의 진리를 받게 된 공덕,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삶의 이치를 꿰뚫어 알게 된 공덕을 자신에게만 채울 것이 아니라 다 존재계에도 돌리겠다는 마음이 바로 수행으로서의 봉사이며, 그 실천이 바로 회향인 것이다.

대승불교에선 말하는 보살도는 바로 원시불교의 사성제나 팔정도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는다.

6 바라밀(六波羅密), 사무량심(四無量心), 사섭법(四攝法) 등의 자리아타(自利利他)적인 수행법을 널리 행함으로써 수행의 완성을 보고자 한다.

회향은 바로 이 자리아타의 마음과 잇닿아 있고 자리아타의 정신은 위의 수행법들 속에 녹아들어 있다. 수행으로서의 봉사는 자리아타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혜원 스님이 설파한 회향의 의미로는 첫째, 자신이 닦은 선업을 깨달음을 얻는데 돌릴 수 있고, 둘째, 자신이 닦은 착한 공덕을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데 돌릴 수 있으며, 셋째, 자신이 닦은 선근을 평등의 진리에 돌려 하나하나의 선이 평등 법신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 한다.

부처님은 한사람이라도 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넓은 인도 대륙을 맨발로 횡단하며 평생을 전도여행에 바치셨다. 수행자요 불자라 함은 그분의 삶을 본받아 스스로 완성된 삶을 추구해나감과 아울러 자신은 물론 이웃도 일깨워서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의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보살임을 자각하고 일상이 곧 수행의 터전임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특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핵심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는 경전의 말씀은 이 세상 어느 존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타인의 몸과 마음이 나의 몸과 마음에 다름 아님을 일깨우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불교는 사람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특히 자신과 아울러 타인을 자신처럼 보는 자리아타 정신의 실천 항목으로서 타인에 대한 사무량심(四無量心)을 강조하고 있다. 자(慈)·비(悲)·희(喜)·사(捨) 라는 네 가지 덕목을 가리키는 사무량심은,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자애로운 마음을 내고자 하는 자무량심(慈無量心),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대하는 비무량심(悲無量心), 이웃의 기쁨을 사심없이 함께 기뻐해주는 희무량심(喜無量心), 어디에도 얽매임 없고 집착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사무량심(捨無量心)을 일컫는다. 사무량심은 보살도의 실천으로서 흔히 자비의 종교라고 일컫는 불교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타인에 대한 무량심은 곧 자신에 대한 무량심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불자들이 잊지않고 수행 실천해야 할 또 한 가지 덕목으로서 육바라밀(六波羅蜜)이 있다. 육바라밀은 말 그대로 여섯 가지 완전한 수행을 뜻한다. 스스로가 보살, 즉 불성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일상이 모두 수행의 터전임을 명심하여 실천하는 수행인 것이다.

육바라밀은 보시(布施)바라밀, 지계(持戒)바라밀, 인욕(忍辱)바라밀, 정진(精進)바라밀, 선정(禪定)바라밀, 반야(般若)바라밀을 한 묶음으로 칭한 말이다.

보시바라밀은 남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재물을 베푸는 재시(財施), 남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법시(法施), 남들을 두려움에서 구제해주는 무외시(無畏施)의 3 가지 유형으로 보시가 나누어진다. 따라서 내가 나눌 수 있는 말, 마음, 재산 등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보시인 것이다.

지계바라밀은 계율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계율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욕바라밀은 욕된 것을 참고 견디는 자세를 말한다. 올바른 보살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기 힘든 욕망이나 헛된 망상, 남으로부터의 비난 등도 인내하고 수용해야 함을 뜻한다.

정진바라밀은 스스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험 없이 한 길을 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일컫는다.

선정바라밀은 정신을 한곳으로 모으는 수행을 통해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킴으로써 언제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반야바라밀은 지혜가 완성된 생활을 뜻한다. 사물의 참다운 이치 즉 연기의 이치를 올바르게 터득해 아무데도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는 생활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살도의 실천방법은 물론 언어로서 표현하고 머리로 익히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삶이 바로 실천의 장이며 순간순간 그 결과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축적됨을 늘 잊지 않음으로써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이 땅을 극락정토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

###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네

옛날에 부처님께서 사위국(舍衛國; Sravasti) 정사에 계시면서 모든 천인天人과 용龍과 귀신들을 위하여 법문을 하셨다. 이때에 파시익(prasenajit)왕의 어머니는 나이가 90 이 넘어서 돌아가실 모진 병을 얻었는데, 의술과 약으로 차도가 있기를 바랐으나 쾌유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왕과 대신들은 법대로 장사를 지내고 시신을 분묘에

모시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처님 처소를 지나게 되었다. 부처님을 뵈자 왕은 상복과 버선을 벗고 부처님에게 예를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앉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왕은 어디에서 오시는데 의복이 남루하고 형색이 예전 같지 않으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하였다. “어머니께서 90 이 넘으셔서 모진 병을 얻어 돌아가셔서 시신을 모셔 장사를 지내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성존을 뵈옵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두려운 것이 크게 4 가지가 있는데, 나면(生) 바로 쇠퇴하고(老), 병病이 들어 윤기가 없어지는 것이며, 죽으면(死) 정신이 나가서 친속親屬과 이별하는 이 4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때때로 주어지는 만물萬物도 무상하여 오래 있지 못하니 하루하루를 지나는 사람의 생명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하(五河; 인도에 있는 다섯 개의 큰 강)가 주야로 흐르면서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빨리 달려가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존께서 계승으로 말씀하였다.  
 如河駛流 往而不返 人命如是 逝者不還  
 강물이 빨리 흘러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의 생명도 이와 같아서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였다.  
 “세상에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없으며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데, 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국왕과 모든 부처와 진인(真人; 아라한. 무위의 진실된 도를 수행하는 사람)과 오신통(五神通; 天眼通, 天耳通, 宿命通, 他心通, 神足通)의 선사도 모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공연히 슬픈 감정으로 그 몸을 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 흐르는 것은 복이 되고, 가는 것을 도와서 추모하는 것은 사람을 멀리 보내는 것과 같은 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왕과 군신은 환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걱정과 근심을 잊어버리고 모두가 도적(道迹; 부파불교에서 수행하는 단계. 속가제자가 제 1 단계인 예류과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함) 득도하는 자취가 있게 되었다.

### 우란분절 백중기도

칠월 보름 백중절 환한 달빛 속에  
 목련존자 지극한 효심 따라 천도의 정성 올리오니  
 먼저 가신 조상님 인로왕 보살님 따라  
 정도에 왕생하여 전정한 열반의 법열을 누리소서.

육도 윤회 중생들과 외롭게 떠도는 영가들이여,  
 탐. 진. 치. 삼독의 어둠 벗어나  
 한 가닥 불심을 회복하소서.  
 해탈의 원적산을 어서 속히 오르소서.

무명 세월 속에 한없이 지은 중생의 죄업을  
 두 손 모아 참회하오니,  
 지옥. 아귀. 축생의 가엾은 죄보 중생들  
 우란분절에 올리는 저희의 작은 정성  
 은 법계에 두루 회향하오니,  
 악한 세상 벗어나  
 감로의 청량 법문 모두 얻게 하소서.  
 무간 지옥에도 연꽃이 피어올라지이다.

알아두면 유익한 불교 관계 홈페이지 주소:  
 불교 TV 방송: [www.btn.co.kr](http://www.btn.co.kr)  
 불교 라디오 방송: [www.bbsi.co.kr](http://www.bbsi.co.kr)  
 대한불교조계종: [www.buddhism.or.kr](http://www.buddhism.or.kr)  
 불교신문: [www.ibulgyo.com](http://www.ibulgyo.com); 불교포커스: [www.bulgyofocus.net](http://www.bulgyofocus.net)

##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 108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연락처는 (404) 510-6957, 또는 (314)993-0185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입니다. (문밖에 Close 라고 써여져 있어도 이시간 동안은 저희가 법회가 센터를 사용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108 호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 오십시오.)
- 일요법회와 달리 영어로 진행되는 참선 법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전 9시에 매주 두 번 있었습니다. 화요일 법회는 당분간 쉽니다. 토요일참선 법회는 차질없이 법회합니다.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들도 두루 참석하셔서 더운 여름 기간동안 하안거 결재한다는 마음으로 마음담는 수행들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 8월 30일 다섯째 주 일요일 10시 30분에 백중 천도 법회가 있습니다. 양력 9월 3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월 다섯째 주 일요일인 8월 30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이날 선망부부,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에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도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척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중기도 동참비는 \$10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일십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휘자 김상화 선생님 지도하에 “부다나라 중창단”이 창립되었습니다. 부다나라 중창단은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불교 음악 경연대회에도 참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음악을 통한 음성 포교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토요일참선법회에서 열심히 정진했던 Mr. Joseph McGibbon 이 송광사로 7월 9일 출가해서 지금 스님이 되기위해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를 부다나라 식구 모두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2009년 7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25번 무인생 Aidan Miller, 326번 경진생 Ryan Miller, 327번 임신생 자비화 나홍렬, 328번 기유생 신덕수, 329번 병술생 신권희, 330번 정해생 신서영, 469번 병진생 무영 김동하, 486번 기축생 애기이름 미정.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 불사: 경오생 김영직, 무술생 현심행 김설아.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팀장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